



- ❖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했다고 해서 중국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미국은 세계 노트북 수입의 약 3분의 1, 스마트폰 수입의 약 4분의 1만 차지한다. 미국의 중국산 노트북 수입 비중은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중국은 세계 최대 노트북과 스마트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 중국 역시 미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미 수출 감소를 메운 것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수출 확대였으며, 특히 베트남과 태국, 인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중국에서 전자부품과 기계류를 수입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흥국 수출 확대 역시 독립적인 시장 다변화라기보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 결국 미·중 양국은 양자무역 비중은 감소했지만 제3국을 매개로 한 상호의존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 하지만 희토류와 의약품 원료, 전자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제조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반대로 중국도 미국 의존을 줄였다고 평가받지만 신흥국을 통한 우회적 대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 향후 미국은 원산지보다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제조업의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산업생태계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수출 확대에 따른 막대한 무역흑자가 반덤핑 조사와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시키고 있어,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 성장모델을 완화하고 내수 확대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미·중 디커플링은 외형상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로 형태만 변화하는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